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조사

이민영 · 유자혜

영동대학교 치위생학과

A study on the smoking statu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some regions

Min-Young Lee · Ja-Hea Yoo

Dept. of Dental Hygiene, Youngdo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smoking state of students in Y university, located in Youngdong-gun, Choungbuk.

Methods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ward 311 number of students in the university. The questionnaire basically consists of the status of smoking, the behavior of smoker and non-smoker.

Results : 58.2% of the male respondents were current smoker, but 72.4% of the females were non-smoker. 58.2% of the current smokers were 22 to 25 aged group. The highest rate of time to begin with smoking was in 15 to 18 years old and the most of people consumed 11 to 20 pieces of cigarettes per day. 48.9% of the students have an experience to keep no smoking more than one month. There were reverse correlation($r=-.335$) between the status of smoking and sex, and positive correlation($r=.264$) between the status of smoking and an age. Of the people experiencing non-smoking, 55.3% were smoking 'everyday' and 44.7% were 'sometimes'. The biggest part of the reason why stopped smoking was for 'the advices of other people'(25.5%), and 'Harm to health' and 'Social atmosphere of non-smoking'(21.3%) were following.

Conclusions : In the university students, current smokers among male students were still high smoking rate. Therefore Dental Hygiene students in the same University have to provide the quit smoking education and oral health care methods for current smokers.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0 ; 10(5) : 917-924)

Key words : smoking, quit smoking, university students

색인 : 금연, 대학생, 흡연

1. 서론

흡연은 오늘날 금연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면서도 지속적인 흡연을 했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담배는 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¹⁾. 이렇게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대두되면서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최근 보고에 의하

면, 매년 40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질병으로 사망사고가 있으며, 2020년에는 1,000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병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²⁾.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로는 폐암이 80~90%, 방광암은 40%, 심근경색증은 40%, 뇌혈관계질환은 50%,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85%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며, 구강암 및 구강질환을 유발하며,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³⁾.

흡연은 조기에 시작할수록 세포와 조직이 약하여 흡

연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가 큰데, 20대 흡연 또한 신체 세포가 담배 독성에 더욱 취약하므로 20대에 속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흡연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5.2배인 데 비하여 15~19세 사이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세계 각국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자의 흡연율은 68.2%로 미국(28.1%), 영국(28.0%), 독일(36.8%)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한국 대학생의 평균 흡연율은 42.7%(남자 64.0%, 여자 21.5%)로 일본 대학생의 평균 흡연율 24.6%에 비해 2배 가까이 된다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80년에 79.3%, 1990년에 75.3%, 2003년에는 5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세 이상 성인 여성의 흡연율 또한 1980년에 12.6%에서 1990년 7.7%, 2000년에는 3.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 그러나 전체 인구대비 높은 흡연 연령층에 해당하는 20~30대의 흡연율은 70~75% 수준으로 거의 변화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⁶⁾,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1980년에 1.34%, 1990년에 1.5%, 1999년에 4.8%, 2006년에는 5.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흡연은 일종의 일탈행위로 인식하여 사회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보여 왔지만⁷⁾,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으로 인식되어 흡연이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실정이며, 여대생들 중에는 흡연이 마치 여성 해방 의식의 표현이거나 사회적인 지위향상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여 흡연하는 경향이 있다⁸⁾. 그러나 대학생 역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못지않은 관심과 금연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흡연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TV속 흡연 장면 규제,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젊은 성인은 금연운동의 효과가 적고 호응도가 낮은 뿐만 아니라⁹⁾, 금단증상과 의지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금연 성공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¹⁰⁾. 따라서 흡연자를 위한 금연교육뿐만 아니라 초기에 흡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흡연 예방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동군에 소재한 Y대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시 효과적인 금연 및 흡연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영동군 Y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311명(남자 213명, 여자 98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흡연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4문항, 현재 흡연 상태 8문항, 금연경험에 관한 4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 통계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7.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행태 및 금연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흡연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정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흡연행태와 일반적인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분포에서 남자는 213명(68.5%), 여자는 98명(31.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연령은 18세~21세가 176명(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22세~25세는 122명(39.2%), 26세~33세는 13명(4.2%)으로 나타났다. 전신질환은 '없다'가 298명(95.8%), '있다'가 13명(4.2%)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이 전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단위: N(%)

Items	Classification	Number(%)
Sex	Men	213(68.5)
	Women	98(31.5)
Age	18-21 years old	176(56.6)
	22-25 years old	122(39.2)
	26-33 years old	13(4.2)
Medical history	No	298(95.8)
	Yes	13(4.2)
Total		311(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oking experiences

Item		Non-smokers	Current smokers	Ex-smokers	Total	$\chi^2(df)$	P
Sex	Men	55(25.8)	124(58.2)	34(16.0)	213(100.0)	64.30(2)***	0.000
	Women	71(72.4)	15(15.3)	12(12.2)	98(100.0)		
Age	18~21 years old	94(53.4)	61(34.7)	21(11.9)	176(100.0)	29.04(4)***	0.000
	22~25 years old	30(24.6)	71(58.2)	21(17.2)	122(100.0)		
	26~33 years old	2(15.4)	7(53.8)	4(30.8)	13(100.0)		
Medical history	No	121(40.6)	134(45.0)	43(14.4)	298(100.0)	0.76(2)	0.683
	Yes	5(38.5)	5(38.5)	3(23.1)	13(100.0)		
Total		126(40.5)	139(44.7)	46(14.8)	311(100.0)		

***p<0.001, p-values are calculated chi-square test

3.2. 연구대상자의 흡연 실태

3.2.1. 일반적 특성과 흡연경험

흡연경험에서 남자는 현재 흡연자가 58.2%로 가장 많았고, 비흡연자가 25.8%, 과거 흡연자는 16.0%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는 72.4%가 비흡연자로 나타났으며, 현재 흡연자는 15.3%, 과거 흡연자는 12.2%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 연령별로는 18~21세에서 흡연경험이 없는 사람이 53.4%, 22~25세에서는 58.2%가 현재 흡연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 그러나 전신질환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2.2. 연구대상자의 흡연행태

연구대상자 총 311명 중 현재 흡연자 139명을 대상으로 흡연행태를 조사한 결과,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15~18세가 48.0%로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흡연량은 11~20개비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10개비로 25.9%, 1~5개비가 14.4%로 나타났다. 과거 1개월 이상 금연을 한 경험 유무에서는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48.9%, 경험이 없는 학생이 51.5%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으로의 금연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는 ‘끊을 생각이 없다’가 48.9%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에 끊을 생각이다’가 36.7%, ‘지금 당장’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4%로 나타났다<Table 3>.

3.2.3. 성별, 연령별, 전신질환과 흡연경험과의 상관관계

성별, 연령과 흡연경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흡연경험은 성별과 부(-)의 상관관계($r=-.335$)가 있으므로 성별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연령과는 정(+)의 상관관계($r=.26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흡연과 전신질환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전신질환자의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Table 4>.

Table 3. Behavior of smoking

Item	Classification	Number(%)
Time to begin with smoking	11~14 years old	20(14.4)
	15~18 years old	67(48.0)
	19~23 years old	52(37.0)
Quantity of smoking	1~5 pieces	20(14.4)
	6~10 pieces	36(25.9)
	11~20 pieces	50(36.0)
	21~30 pieces	16(11.5)
	31~40 pieces	6(4.3)
	More than 40 pieces	11(7.9)
Experience of quit smoking (more than one month)	Yes	68(48.9)
	No	71(51.1)
Plan to quit smoking	Immediately	20(14.4)
	In a six month	51(36.7)
	Non	68(48.9)
Total		139(100.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behavior of smoking and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Behavior of smoking	Sex	Age	Medical History
Behavior of smoking	1.000			
Sex	-.335**	1.000		
Age	.264**	-.415**	1.000	
Medical history	.031	-.038	-.005	1.000

**p<0.001

Table 5. Behavior of quit smoking experienced students

Item	Classification	Number(%)
Frequency of smoking	Everyday	26(55.3)
	Sometimes	21(44.7)
Reason of quit smoking	Harm to health	10(21.3)
	For health of family	7(14.9)
	Economic reasons	1(2.1)
	Religious reasons	2(4.3)
	Social atmosphere of non-smoking	10(21.3)
	Advices of other people	12(25.5)
	Do more harm than good	5(10.6)
Total		47(100.0)

3.2.4. 연구대상자의 금연행태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 금연상태인 경우, 과거에 흡연 빈도가 ‘매일’이 55.3%이었고, ‘가끔’이 44.7%로 나타나 ‘매일’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금

연을 한 이유로는 ‘주위의 권고’가 25.5%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나빠져서’와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가 21.3%, 그 다음이 ‘가족의 건강’ 때문에 금연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14.9%로 나타났다<Table 5>.

4. 총괄 및 고안

흡연은 무절제한 음주처럼 일시에 대형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된 흡연은 니코틴의존성으로 쉽게 중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인식이 퍼져감에 따라 각국에서는 금연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WHO에서는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정하여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¹¹⁾.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¹²⁾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7.7%, 일평균 흡연량은 15.9개로 조사된 바 있다. 20대의 흡연은 흡연 시작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흡연자의 신체 세포가 담배 독성에 더 취약하여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독 현상도 빠르게 진행된다¹³⁾.

한국 성인 남성 흡연자 10명 중 6명이 매년 금연을 시도하고¹⁴⁾, 금연 방법으로는 96.4%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라고 하였다¹⁵⁾.

성인 초기, 즉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사망률이나 이환율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건강한 시기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고 건전한 건강행위를 수립하기에 효과적인 시기¹⁴⁾ 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을 해치는 불건전한 습관을 갖기 쉽다.

또한 이들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비로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년기에 속한 이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갖는 것은 흡연과 같은 나쁜 습관에서 비롯되는 건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향후 중년기와 노년기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겠다¹⁵⁾.

본 연구에서 흡연행태를 살펴보면, 남자는 현재흡연자가 58.2%로 가장 높았고, 비흡연자가 25.8%, 과거흡연자가 16.0%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지역 보건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흡연 실태를 조사, 분석한 윤과 김¹⁶⁾의 연구결과에서는 70.5%로 나타나 대구지역 보건대학생들 보다는 현재흡연자율이 낮았지만, 임 등¹⁷⁾의 연구에서는 50.8%, 유¹³⁾의 연구에서는 28.8%로 나타나 본 연구의 현재흡연자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72.4%가 흡연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현재흡연자는 15.3%로 2005년 7월에 한국금연연구소에서 조사된 여대생 흡연율은 21.5%로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일본 여자 대학생 흡연율이 7.0%인 일본과 비교해 볼 때 2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¹⁸⁾.

흡연시작 시기를 비교해 본 결과, 구¹⁹⁾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10개비 미만으로 피우는 비율이 83.7%, 여학생은 57.9%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흡연량은 11~20개비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6~10개비 25.9%, 1~5개비 14.4%, 21~30개비 11.5%, 40개비 이상 7.9%, 31~40개비가 4.3%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구²⁰⁾의 연구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다른 연구에서보다 흡연량이 높은 이유는 Y대학교 학생들의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Meade와 Wald는 1일 15개비 이하의 흡연을 가벼운 흡연(light smoking), 16개비 이상의 흡연을 과도 흡연(heavy smoking)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본다면, 하루 평균 과도흡연을 하는 학생이 23.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하여 가벼운 흡연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니코틴에 의해 습관화되기 전 빨리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²⁰⁾.

'과거 1개월 이상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가'에서 '예'가 48.9%, '아니오'가 51.1%로 나타났다. 임 등¹⁷⁾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61.0%, 여학생의 68.8%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06년 한국 궐련의 금연 시도를 조사에서 응답자중 남성이 75.4%, 여성이 51.4%로 나타났으며, 서울 성북구에서 실시한 흡연실태조사연구의 20대 연령대와 비교해 본 결과 전국평균은 60.3%, 성북구는 60.6%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연시도경험이 6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금연시도경험은 50.0%에 조금 못 미치는 때문에 구강보건교육 시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금연의 주된 이유'는 임 등¹⁷⁾은 남학생의 42.1%, 여학생의 38.5%가 현재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주위의 권유', '흡연의 불편함' 순이었다. 박²¹⁾의 연구에서도 금연의 주된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59.2%가 응답하였으며, 김 등²²⁾의 연구에서는 '백해무익해서'이라고 31.2%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위의 권유'가 가장 주된 이유라고 25.5%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건강상의 이유'와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가 각각 21.3%로 나타나 주된 이유는 다른 연구와 거의 비슷하지만 각 이유에 대한 응답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은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생들은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할 수 있으나, 대학생이라는 나이로 보아 실질적으로 건강문제를 경험하기 어려워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건강상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금연을 통해 미리 생길 수 있는 건강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관한 금연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의 금연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끊을 생각이 없다'가 48.9%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에 끊을 생각이다'가 36.7%, '지금 당장'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4%로 나타난 반면, 김²²⁾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0%로 높게 나타나고 '6개월 이내에 끊을 생각이 없다'가 15.0%로 나타나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와 올바른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흡연율이 다른 집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금연에 대한 생각이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있어서 흡연에 대한 조절은 전체 예방의 학계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²³⁾. 또한 1995년 인간에게 일어나는 여러 질병과 사망의 원인 중 예방이 가장 가능한 요인은 흡연으로 밝혀졌다⁹⁾.

대학생이 된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도 여학생의 경우 높게 나타나므로 대학(교)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 폐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Y대학교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특히 입학 전후에 실시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를 실시한다면 남·여학생들의 흡연율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 시 효과적인 금연 및 흡연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영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Y대학교 대학생 총 311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현재 흡연상태 및 금연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흡연경험에서 현재흡연자는 남자가 58.2%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72.4%가 흡연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18~21세에서 흡연경험이 없는 사람이 53.4%, 22~25세에서는 58.2%가 현재 흡연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
2. 흡연시작 연령은 15~18세가 48.0%로 가장 높았고, 하루 평균 흡연량은 11~20개비가 36.0%로 가장 많았다. 과거 1개월 이상 금연을 한 경험 유무에서는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48.9%로 나타났다. 금연계획은 '끊을 생각이 없다'가 48.9%로 가장 많았다.
3. 성별, 연령과 흡연경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흡연경험은 성별과 부(-)의 상관관계($r=-.335$)가 있고, 연령과는 정(+)의 상관관계($r=.26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 금연을 한 경우, 과거에 흡연 빈도가 '매일'이 55.3%이었고, '가끔'이 44.7%로 나타났다. 금연을 한 이유로는 '주위의 권고'가 25.5%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나빠져서'와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가 21.3%, 그 다음이 '가족의 건강' 때문에 금연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14.9%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흡연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아 금연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학생들과 하루빨리 Y대학교 실정에 맞는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Gi SH: Present condition and the epidemiology quality of smoking tobacco. Korean Ass Smoking and Health 2000.
2.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tobacco/2005>.
3. Gong HJ, Kim AG, Kim KH, et al.: The study on the stress smoking tobacco female college student and behavior of smoking. J Nursing Acad Ass Ewha Womans Univ 2006;40:1-13
4.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 Smoking and Health 2001.
5.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A survey on status of smoking in 4 college student in Pusan Gyeongsangnam-do area. 2004.
6.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 risk behavior and chronic disease statistics 2004.
7. Sin OS: A study of the related factor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Master's Thesis of Graduated School of Kyungsan Univ, 2003.
8. Song MS: A study on nutrient intake and food habits influenced by smoking for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J Korean Soc Health Edu 1987;4(2):71-94
9. Kim MS, Kim AG: A study on experience of smoking level in some female undergraduates. J Korean Acad Nursing 1997;27(4):315-328
10. Jung MH: The knowledge, attitude on smoking and the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of smoking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of Graduated School of Jeonbuk Univ. 2005.
11. Kwon HK, Kim HS, Yoo JH, et al.: Smoking pattern of the dentists in Kyong-gi.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5;29(3):333-344
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2008)결과발표. 2009:51-80.
13. Ryu MH: Smoking pattern among student in Namseoul university. J Health Care Wel Res 2005;2(1):160-170
14.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A research on the actual smoking state in more than 20 years old. 2002.
15. Ahn SG: The study of smoking attitude,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of adult male. Master's Thesis of Graduated School of Ewha Woman' Univ, 2003.
16. Kim A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dult's health concept and health behavior. J Nurses Acad Soc 1995;24(1):70-84
17. Park GY: The relationship among the dejection and smoking tobacco quantity, smoking tobacco duration, and nicotine dependence of university male students in Seoul. J Nursing Acad Ass Ewha Womans Univ 2003;37(1):30-55
18. Yoon IS, Kim KH: Smoking status and nicotine dependency of Taegu health college students. Taegu Health College 21, 2001.
19. Rhim KH, Lee JH, Choi MK: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Pub Health Res 2004; 30(1):57-70
20. Thornton A, Lee P, Fry J: Differences between smokers, ex-smokers, positive smokers and non smokers. J Clin Epid 1994;47(10):1143-1162
21. Ku, JI: A study on the health belief difference of smoking cessation of university smokers. J Nursing Acad Assoc Ewha Womans Univ 2003;120(2): 120-138
22. Meade TW, Wald NJ: Cigarette smoking patterns during the working day. Brit J. Prev Soc Med 1977;31(1):25-29
23. Park HJ: Research of the relationship with smoking tobacco attitude and prohibition of smoking experience of male college students. J Nursing Acad Assoc Ewha Womans Univ 2007;41(1):40-54

24. Kim HK, Kim EJ, Lee MS, et al.: A research on the actual smoking state and awareness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9; 9(2):241-247
25. Choe IS, Choe YJ: A study on the effects of smoking on oral hygiene and gingival inflammation. Collected papers for College of Dentistry at Kyunghee University 2004;17(1): 331-337